

부문별 주요 기사

7월 1일 ~ 7월 31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7월 1일~7월 31일

대내경제 51

<경제성장률>

대북제재에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5% 추정

<시장>

원료 부족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 들여와

북한 부동산 시장 확대

北, 외화 사용량 증가

전력난으로 내연(디젤)기관차 투입

<전력·에너지>

北, 전기 공급 개선

<농업식량>

식량 부족으로 절량세대 급증

<주민생활>

당국의 지속적인 물자지원 과제로 군인들의 불만 고조

대외경제 53

<대북제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북한의 비핵화 이행까지 압박 지속할 것

<북중관계>

북중 대북제재 완화 및 경험 재개 움직임

<국제지원>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감소

부문별 주요 기사

7월 1일~7월 31일

대외경제 53

〈대외무역 및 투자〉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 및 신규 투자 유치 노력

〈남북경제협력〉

산림협력분과회담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방북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경제성장률>

VOA(7.20), 한국경제(7.20), 매일경제(7.20)

대북제재에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5% 추정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997년 고난의 행군 시기 마이너스 (-)6.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가뭄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부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무연탄과 철광석, 수산물, 섬유제품 등 북한의 주요수출품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광업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미쳤다는 분석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시장>

아주경제(7.6), DailyNK(7.5, 7.12), RFA(7.2, 7.3, 7.15)

원료 부족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 들여와

최근 북한의 국산화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들이 중국산 식료품과 소비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생산기술의 현대화와 원료 및 상품의 국산화를 추진해온 것과 맞물려, 대북제재에도 끄떡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북한 소식통은 북한 내 원료 부족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국내로 들여와 국내산으로 상표만 바꿔서 유통시킨다고 전함. 한편 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이 양적으로 중국산을 넘어섰다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어 국산화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북한 부동산 시장 확대

최근 평양과 개성 등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임. 물론 북한은 이론상 정부가 모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주민들은 주택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사용권을 구매자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북중 접경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한반도 정세 안정화 조짐에 따라 단둥이 대북무역의 최대 접점도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평양에서는 주로 달러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북중 접경지역에는 주로 인민폐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함.

北, 외화 사용량 증가

북한 도시와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외화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임. 지역마다 통용되는 외화의 종류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은 달러를 중심으로 유로, 엔, 위안, 루블 등 다양한 외화 사용이 가능하며, 지방에서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달러와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음. 중국 접경지역인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위안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개성에서는 주로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임. 이에 북한 당국은 내화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화로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해 전자결제를 독려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전력난으로 내연(디젤)기관차 투입

고난의 행군 이후 전기 난으로 통근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개인 씨비차(버스)가 주민들의 수송을 맡으며 차주들이 큰 수익을 내고 있음. 이에 철도국에서도 내연기관차를 투입해 수년 동안 운행했었지만 이용객 부족으로 운행을 중단했었다가 최근 운행을 재개함. 전력난이 심각한 탓에 내연(디젤)기관차가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주민들은 내연기관차의 운임이 너무 비싸 여전히 씨비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군용열차나 특별열차는 대부분 전력난 때문에 내연기관차로 운영되고 있음.

대외경제

<대북제재>

조선일보(7.2), RFA(7.5, 7.16), VOA(7.24), 매일경제(7.25),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북한의 비핵화 이행까지 압박 지속할 것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효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압박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유럽연합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이전까지는 어떤 대북제재도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베이징을 방문한 러시아 상원 의장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밝힘.

북·중,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CVID 달성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미 국무부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표하여 불법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을 소개하고,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함. 금번 경보는 새로운 제재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기업들에 미필적 대북제재 위반 시에도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음.

<북중관계>

서울신문(7.2), 한국일보(7.2), 한국경제(7.3), 아시아경제(7.20), 조선일보(7.23), Daily NK(7.11), RFA(7.24)

북중 대북제재 완화 및 경험 재개 움직임

중국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재 이행은 약화되고 북중간 비공식무역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중국 당국은 단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귀국 명령을 내렸으나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철수된 인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취업자들이 계속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나선시 원정리 세관근처에 첫 무비자 국경시장을 개설하여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채소, 농토산물 등을 판매하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임. 시장은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에 세워졌으며, 대북제재 품목인 수산물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짐.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3차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첫 공개일정으로서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신도군 갈대농장 등 북중접경 지역의 경제시찰에 나섰으며, 이어 경제·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성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하였음.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의 랴오닝성은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시험구로 개방 확대에 나서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지역 진흥 전략의 하나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랴오닝성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비해 북한 진출 기업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험 분야로서 에너지·자원 외에 공단 건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제지원>

RFA(7.6), VOA(7.3, 7.10)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감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과 세계식량계획의 지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VOA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액은 약 1천 19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 이후 매년 지원되었던 유엔의 긴급구호기금이 대북 제재 등으로 송금길이 막혀 올 상반기에는 배정되지 못했으며, 세계식량계획도 자금 부족과 대북제재로 인해 1~5월까지의 식량 지원량이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음. 한편, 미 국무부는 대북지원이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는 비판을 제기함. 이에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대변인은 지원 물품의 분배 감시를 위한 유엔 기구들의 현장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함.

<대외무역 및 투자>

동아일보(7.5), 한국일보(7.9), 파이낸셜뉴스(7.10),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 및 신규 투자 유치 노력

KOTRA가 발표한 '2017년 북한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무역

규모는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37.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8%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20억 1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 같은 결과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북한의 주력 상품들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결의안 2371호가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최근 북한은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베이징에서 열린 조선족기업인 간담회에서는 북한이 과거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원산을 제주도와 같은 무비자 입국 지역으로 개발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 한국, 중국, 미국 등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지역도 각각 지정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11일에는 러시아에서 북한과 러시아 기업가 사이의 투자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8월 중에는 나선 특구 국제무역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임.

<남북경제협력>

파이낸셜뉴스(7.5), 국민일보(7.12),

산림협력분과회담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방북

남북은 4일 산림협력분과회담을 열고 북한 산림현황에 대한 공동조사와 북측이 강조하는 양묘장 조성사업과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함.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전문가단은 13~14일 방북하여 라선 지역에서 러시아 측이 주최하는 남·북·러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고,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나진항 등 현장을 둘러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연합뉴스(7.31)

아래 표는 7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시우정 그룹 (중국)	2018년 7월 지원 합의	의약품	약 18억원 (1천 100만 위안)	감기약을 포함한 40여종 의료품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7.02] “北 보따리상·노동자 확 늘어” 달라진 단둥 (한국일보)
- [2018.7.02] 김정은, 北·中 국경지역 돌며 경제시찰 (서울신문)
- [2018.7.02] 폼페이오, 중국에 경고 전화 “對北 제재 지켜라” (조선일보)
- [2018.7.02] 북, 철도에 디젤 기관차 투입해 수익률 높이기 나서 (RFA)
- [2018.7.03] “북한 부동산 시장 점차 활기” (RFA)
- [2018.7.03] 美 농무부 “북한 주민 10명 중 4명 10년 뒤 식량 부족” (매일경제)
- [2018.7.03]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 訪中 대북 제재 벌써 풀리나 (한국경제)
- [2018.7.03]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지난해 절반 수준 (VOA)
- [2018.7.05] “北, 원산 무비자 입국 구상…제주도처럼 만들려 해” (동아일보)
- [2018.7.05] 방중 러 상원의장, 시진핑 면담서 “대북제재 해제·완화는 시기상조” (RFA)
- [2018.7.05] 北 산림현황 공동조사 추진…양묘장 조성사업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 [2018.7.05] 北 평양 고층아파트 빈집 속출…“높은 가격에 구매 주저” (DailyNK)
- [2018.7.06] 한반도 해빙에 “중국 자본 북한 부동산 유입 늘어” (아주경제)
- [2018.7.06] WFP 올 1~5월 대북 식량지원, 전년 대비 23% 감소 (RFA)
- [2018.7.09] 北 “황금평·나선을 전진 기지로” 투자유치 열의 (한국일보)
- [2018.7.10] 北, 유엔 제재에 무역적자만 20억弗 (파이낸셜뉴스)
- [2018.7.10] 유엔, 국무부 대북지원 비판에 “취약계층 전달 확산” (VOA)
- [2018.7.11] 北 원정리 국제시장 7일 개장…中관광객 대상 수산물 판매? (Daily NK)
- [2018.7.11] FAO “북한올해 식량 65만2000t 부족할 듯” (매일경제)
- [2018.7.11] 北 군인들 “국가에 바치라는 것뿐이니 못살겠다” (아시아경제)
- [2018.7.12] 北 주민에 ‘中물품 안쓰냐 물었더니…“中상표 떼기도” (DailyNK)
- [2018.7.12] 나진·선봉 경제특구 점검차…송영길 북한 간다 (국민일보)
- [2018.7.13] FAO “북한 올해 쌀 160만 수확 전망”…지난해와 같은 수준 (VOA)
- [2018.7.15] 북, 자국화폐 불신으로 외화 사용량 증가 (RFA)
- [2018.7.16] EU “북 완전한 비핵화 이행까지 제재 압박” (RFA)
- [2018.7.20] 北, 라선에 무비자 자유무역시장 개장 (아시아경제)
- [2018.7.20]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20년 만에 최악” (VOA)
- [2018.7.20] 뒷걸음질 치는 북한, 작년 성장률 ‘-3.5%’...20년 만에 최저치 (한국경제)
- [2018.7.20] 대북제재 효과...北 20년 만에 ‘최악 성장’ (매일경제)
- [2018.7.23] 라오닝 “북한 개방하면 미중 무역전쟁 피해 감소” 기대 (조선일보)
- [2018.7.23] 북 농촌 식량 사정 악화...“절량세대 급증” (RFA)

- [2018.7.24] 미국, 대북제재 주의보 전격 발표...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문제 겨냥 (VOA)
- [2018.7.24] 중 당국, 북 노동자 귀국시키라 지시 (RFA)
- [2018.7.25] 美, 대북제재경보 발령...북한産 모르고 수입한 기업도 '철퇴' (매일경제)
- [2018.7.25] 北, 태양광 기술 개발 선전...전문가들 "당장 전력난 해결은 어려워" (DailyNK)
- [2018.7.27] <북한내부> 돌연 전기 공급 대폭 개선...사용료 부담 강하게 요구하는 움직임도 (아시아프레스)
- [2018.7.27] 日 매체 "北 전력사정, 최근 갑자기 좋아졌다...주민들 놀라워해" (동아일보)
- [2018.7.31] 중국, 대북지원 본격화...의료품 18억원어치 무상지원 (연합뉴스)